



음바페,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새 주장
킬리안 음바페(24·파리 생제르맹)가 은퇴한 위고 요리스(토트넘)의 뒤를 이어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주장으로 낙점됐다.

류현진 “재활 순조… 7월 중순 복귀 목표”

27~37m 거리 캐치볼 소화
내달부터 볼펜 투구 예정

끝날 것 같지 않던 ‘재활의 터널’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코리아 빅리거’ 말형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재활 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내가 스스로 정한 이상적인 복귀 시점은 7월 중순”이라며 “그때까지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재활을 마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7월 중순’은 류현진이 꾸준히 밝혀왔던 복귀 목표 시점이다. 목표로 삼은 날짜까지 100일밖에 안 남았기에 순조롭게 재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말이다.

지난해 6월 흔히 ‘토미 존 수술’이라 불리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소화 중이다.

인대를 재생하기 위한 지루한 재활 훈련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투구에 필요한 근육을 다시 만들어가는 단계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90~120피트(27~37m) 거리에서 캐치볼을 소화하고 있으며, 4월에는 볼펜 투구를 위해 마운드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일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동료들과 수다로 하루를 시작하는 류현진은 “이들과 함께 있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고 동기부여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규시즌이 개막하면, 류현진은 동료들과 작별해야 한다.

그는 “곧 이들이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재활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트 워커 토론토 투수코치는 “류현진의 재활은 순조롭고, 이번 시즌 중에는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던질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여전히 캐나다 팬들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재활 분위기를 전했다.

2019년까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고 2020년 4년 총액 8000만 달러(약 1045억 원)의 조건에 토론토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은 올해로 계약이 끝난다.

계약 첫해인 2020년은 단축 시즌에도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로 활약해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견인했고, 2021년은 14승 10패 평균자책점 4.37로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는 2승 평균자책점 5.67을 남기고 수술대에 올라가 조금이라도 팀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류현진은 “우리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10월까지 선수들과 경기에 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MLB닷컴은 “토론토는 류현진이 올해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 가정하고 올해 로테이션을 꾸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방어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류현진의 복귀는 토론토에 보너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단에서 부상자는 반드시 나온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도 있기 마련이다. 팀 내 유망주 순위 1위인 좌완 리키 타이드만이 콜업을 기다리는 가운데 류현진이 돌아온다면 팀에 축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세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연세

클린스만 감독과 첫 호흡 손흥민 “설레고 영광” 보훈처, 발달장애 골퍼 이승민 88CC 홍보선수로

“공격축구 빨리 맞춰 나갈 것” 강조

한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은 소속팀인 잉글랜드 토트넘의 ‘레전드’였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과 국가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 것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손흥민은 21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 이후 다시 소집하게 돼 무척 기쁘다. 새로운 감독님과 받을 맞춰볼 생각에 설레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이 지휘한 대표팀의 주장으로 16강 진출에 앞장선 손흥민은 ‘1기 클린스만호’에도 어김없이 이름을 올려 전반기는 오후 입국, 파주 NFC에 입소했다.

대표팀 지휘봉을 새로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이 축구 선수로 성장기를 보내고 프로로 데뷔한 나라인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출신이며, 1990년대 중후반 토트넘에서 활약한 적도 있어 이번 소집은 이들의 첫 만남으로 관심을 끈다.

벤투호에 이어 주장직을 이어갈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클린스만 감독 체제의 대표팀에서도 손흥민은 ‘에이스’이자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손흥민은 “저희가 감독님에게 빨리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지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선수는 많은 골을 넣고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 매 순간 어렵다”고 털어놓은 그는 “감독님이 공격적인, 화끈한 축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선수들이 잘 맞춰가며 감독님이 원하시는 축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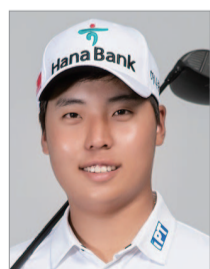
연세

연습장·정규홀 이용 회원 대우 특전
파리 패럴림픽 초대 챔프 도전 지원

국가보훈처(보훈처)는 21일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선수를 보훈처 산하 88컨트리클럽(CC) 홍보선수로 위촉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승민은 지난해 7월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한 장애인 골프대회 ‘US 어댑티드 오픈’에서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자폐성 발달장애 3급 장애인 최초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프로 자격을 취득하며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88CC 인근에 거주하는 이승민은 그동안 유료 시설을 이용하며 골프 연습을 해왔다. 이번 홍보선수 위촉으로 실외 연습장 타석·필드 플레이 이용, 정규홀 이용 때 회원



대우 등의 특전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승민은 “골프 종목이 2024년 파리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 초대 챔피언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윤종진 보훈처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흘리며 도전을 이어가는 이승민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8CC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됐다. 88꿈나무 장학생 육성과 국군포로 귀환용사 지원금 지급 등 사회공헌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서현우 기자